

世界 原子力發電의 現況과 展望

Hans Blix

國際原子力機構 事務總長

* 본 논문은 第 6 次 太平洋沿岸國
原子力會議에서 연설한 내용을
번역한 것임.

세계는 어디에나 몇時間帶로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委小化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世上은 異質的인 要素를 많이 内包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 太平洋沿岸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政治發展도 겸하고 있어 장래성 면에서 무척 希望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餘他 地域에서는 太平洋沿岸의 發展 상황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지구상에서는 어디에서나를 막론하고 경제개발이 이룩되기만 하면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환영 할만한 일이다

여기서는 經濟開發에 必要不可欠의 요소인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경제개발과 에너지需要가同一速度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社

會開發이 加速化되면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1975~1985年間의 1次에너지消費增加는 11%였지만, 電力소비 증가는 무려 46%였다. 이것을 보면 에너지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電力소비 증가는 눈부시게 증가할 것이다.

世界의 原子力發電 動向

原子力은 이미 電力需要를 충당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뜻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들면, 日本은 2,580만kW의 원자력 설비용량을 가동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6,200만kW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韓國은 540만kW를 운전중에 있고, 中共에서는 原子力 第 1 號機를 建設中에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宗教的이라 할 만큼 原子力を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言論機關에서는 하잘것 없는 것 일지라도 原子力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머리記事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原子力發電計劃이 취소되고 새로이 發注되지 않는 것 까지도 政治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原子力發電으로 말미암은 死傷率은 너무 誇張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개인의 見解에 의하면 原子力은 오늘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고 내일엔 活性化 될 것이 틀림없다.

체르노빌事故의 餘波가 여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몇몇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의 新發注를 유보하게 되었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社會政黨이 이점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執權黨의 원자력발전 추진을 挫折시키는 데는 대체적으로 실패하였다.

체르노빌 사고가 난지 며칠이 지난 후 經濟大國 수뇌들이 東京에 모였을 때, 원자력발전은 적절히 관리되기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의 發電中 큰 뜻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소련지도자인 고로비초

프는 “원자력발전이 없는 세계경제의 장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천명할 정도였다.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나라 原子力발전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유고, 스위스, 이탈리아에서는 사실상 新發注를 拒否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스웨덴은 TMI사고후 원자력을 2010년까지 없애자고 결정했는데, 최근에는 1990년대 中葉에 없애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完工된 原子力발전소를 密閉管理 (mothball) 키로 하였고, 오스트리아는 밀폐관리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해체철거키로 하였다.

우리 모두는 미국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미국서는 TMI 이후 원자력의 新發注가 1件도 없었고, 1975년 이래로 무려 100基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石炭火力 발전기도 63기나 취소되었는데, 이 모두는 經濟沈滯로 인하여 電力需要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건설중인 原電의 經濟性은 建設工期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의심스러우나 가동중인 原電은 運轉實績도 좋고, 경제성도 뛰어나다. 그래도 미국은 아직도 100기가 가동중일 만큼 세계최대의 원자력발전국이고, 15기는 건설중에 있다. 문제는 새로운 電力需要가 급격히 늘어날 1990年代에 原子力이 優越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과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에 있다. 최근에 발행된 미국 에너지省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이 필요불가결하므로 원자력이 蘇生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초강대국인 소련에서는 체르노빌型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와 여러가지 절차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차 소련의 원자력발전계획에서는 사고를 낸 RBMK炉型에 의존하지 않고 고급수준으로 標準化한 1,000MWe PWR을 채택키로 하였다.

유럽최대의 원자력발전국인 프랑스는 아주 인상적인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이미 프랑스 전력수요의 70% 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적인 原子力발전시설은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主要 電力輸出國으로까지 浮上하고 있다.

유럽최대의 원자력발전국인 프랑스는 아주 인상적인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이미 프랑스 전력수요의 70% 이상을 충당하고 있고, 原電發注추세가 감소현상을 보인 것은 이미 체르노빌사고 이전부터의 일이었다. 하여튼 프랑스의 원자력계획은 標準 PWR을 根幹으로 하여 平장한 成功을 이룬 것으로서 施工中의 경험을 다음 設計에 反映하는 feedback을 아주 조직적으로 施行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적인 原子力발전시설은 국내수요를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主要電力輸出國으로 까지도 浮上하고 있다. 작년도만 해도 電力 輸出高가 50억 프랑을 上廻하였다.

西獨에서는 原子力發電이 커다란 政治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執權黨인 기독民主党이 원자력 발전을 강력하게 밀고나가고 있긴 하지만, 社會民主黨은 이미 국내電力 수요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環境保存을 주장하는 政黨도 또 하나의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금년초의 선거에서 기독민주당이 自由党과 더불어 승리하였으므로 원자력발전계획 추진은 강력한 반대에 부딛히고 있긴해도 앞으로 계속될 것은 틀림이 없다. 이미 廣工된 Kalkar 高速增殖爐의 試運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영국이 Sizewell原電에 대한 公廳會에서 희망적인 결론에 도달했고, 政府當局이 原電의 新發注를 승인키로 결정한 것은 오늘 세계의 原

子力界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里程表가 되고 있다.

영국이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OECD 국가群 안에서 원자력에 더욱 더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와 日本과 같은 隊列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標準 PWR型을 원자력발전 계획의 主宗으로 삼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년 7月末까지 세계적으로 407기의 원자력 발전이 운전中이고, 작년에 23기가稼動을 시작했고, 금년 7個月 동안에는 11기가 着工 되었다. 그리고 금년중에 18기가 더 竣工될 예정이지만 그 實現與否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것은 모두가 체르노빌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새로이 發注된 것은 프랑스의 Golfech-2호, 日本, 한국의 11·12호기 및 영국의 Sizewell B 등이다.

電力需要와 原子力發電

세계에서 發電되고 있는 電力中 6분의 1은 原子力이다. 1986년도의 세계 原子力 發電量인 1,500TWh (1.5兆kWh) 은 미국전체의 石炭生産量과 맞먹는 분량이고, 1982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石油 生산량인 1日 700萬배럴에 해당하기도 한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전세계의 石油生産量은 1日 1,000萬 배럴分인데 그중 700萬배럴은 中東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原子力發電의 장래를 결정하는 決定的 구실을 하는 因子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電力需要이다.

1973년까지 先進工業國에서 하나의 定説로 되어 있었던 6~7%의 연간 電力증가율이 현재는 연 2~3%로 떨어졌다.

1970年代의 油類波動이래로 에너지需要는 構造的 변화를 가져왔다. 선진공업국에서의 石油 수요는 줄어들었으나 전기수요는 국민 총생산

에 발맞추어 계속 增加一路에 있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電力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先進國이나 開途國이나를 막론하고 새로운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發電設備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1970년대 初에는 지난날의 過度한 需要豫測에 힘입어 발전설비를 過多하게 發注하였기 때문에 豫備率이 너무 많아 한때는 비난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날 전문가들이 電力需要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고 또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잘못 평가한 일도 없지 않았으나 21世紀初에는 原子力수요가 上昇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原子力계획을 上向조정 해야 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預測值에 同意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에너지절약과 再生可能한 에너지源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에너지절약이 에너지소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경保存主義者들은 電氣의 에너지 效率이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하지 않고 있다. 1次에너지의 절약 못지 않게 에너지를 電力으로 전환하는 것도 括目할만한 현상이고, 이에 따라 전기를 더욱더 많이 발전해야만 한다.

水力を 빼고는 再生可能한 에너지源의 기여도는 보잘 것이 없다.

따라서 發電容量面에서는 石炭火力과 原子力中 兩者一擇 내지는 兩者共擇이 될 가능성이 가장 실체적이고 그밖에 약간의 天然gas와 水力이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原電의 經濟性 向上方案

물론 원자력발전을 하려면 막대한 投資를 필요로 하는데 現實的으로는 현재 자본을 구하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듯 資本이 전반

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計劃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아가 건설비와 工期管理를 엄격하게 하여 건설비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잘해낸 예를 日本에서 보게된다. 日本의 경우 1980~1986년 사이에 竣工된 13기의 原電工期는 54個月 이었다. 또한 발전소를 標準化하여 成功을 거둔 예는 프랑스에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표준화를 모범적으로 하여 건설비를 예정가격보다 더 낮추기도 하였다. 반대로 우리는 工期가 지연되면 그것이 原子力 經済性에 얼마나 치명적인 打擊을 가하였는가를 똑똑히 보았다.

원자력발전소는 계획과 건설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만 하면 競爭力이 優越하게 된다. 石炭火力發電單價는 미국과 카나다의 炭田지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자력에 비해 거의 2배정도 비싸다.

IAEA는 전세계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실적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뱅크를 이용하여 積動効率을 改良할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1979년도에 운전중인 세계 原電의 平均 負荷率(capacity factor)은 불과 61%였기 때문에 무척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70%로 上昇했다. 이 보다 더욱 希望的인 사실은 현재 운전중인 전세계 4백기의 動力爐中의 55%는 75%의 積動率(availability factor)로 운전하면서 定格出力を 제대로 내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숫자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많은 電力會社는 해마다 80%이상의 가동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實績은 安全性을 조금도 희생시키지 않고 이룩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TMI 이후에는 운전과 補修의 質을 한층더 向上시키면서 그런 실적을 올린 것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최고의

기술기준을 어떻게 하면 餘他의 발전소 건설과 운전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가의 과제인데, 이를 추진키 위한 捷徑은 전통적으로 각 전력회사의 고질적인 痘弊인 폐쇄성을 타파하고 상호간에 경험과 기술과 정보를 널리 교환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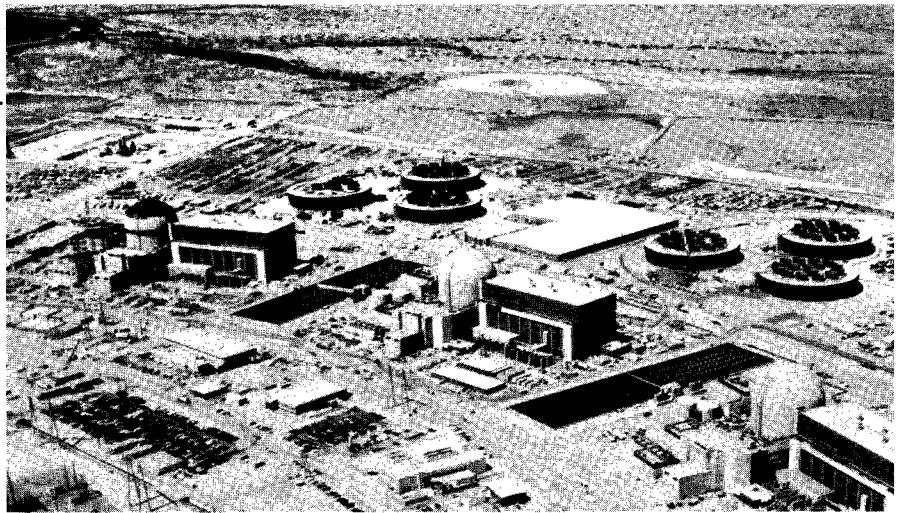
原子力의 導入

원자력이 지난 有利點 中의 하나는 그것이 에너지 自立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先進工業國에서는 자기네가 가진 선진에너지 生產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輸入量을 크게 줄이게 되었고, 반대로 비록 원자력 기술과 연료를 도입하는 나라일지라도 발전手段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함으로써 에너지를 몇년씩이나 備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자력 발전도입이 평장히 느린다. 앞에서 본인은 전세계의 전력 생산량 중 16%가 원자력 뮻이라고 말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그것이 3.5%에 지나지 않고 2000년도에 이르러도 6%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낮은 것은 개도국에서의 에너지 수요가 적기 때문이 아니다.

인도같은 나라에서는 電力化정책을 채택하여 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2000년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추가로 건설해야 할 발전설비용량은 5.2억 내지 7.3억kW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OECD 國家群의 수요량과 맞먹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의 原子力占有 rate은 앞으로도 기대이하로 적을 것이 예상된다.

최근 IAEA 자문단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원자력발전 도입을 어떻게促進시킬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融資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물론 개발도상국은 대체적으로 財政 동원 능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融資 문제는 가장 취약점을 지닌 분야이다. 그러나 또하나의 크나큰 隘路



點은 產業의 下部構造가 未備하고, 특히 기술 능력을 가진 人力이 모자란다는 점이다. 그리고 意思決定經路, 企劃, 공업적인 뒷받침 등도 커다란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難點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IAEA의 支援이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원자력발전에 손대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자신이 없어 망서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모든 분야에서 돈이 모자라는데 그런 막대한 액수를 단일사업에 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는 선진국에서 조차도 원자력의 장래에 대해 회의적인 안목으로 보는 見解가 없지 않은 現時點에서 후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不確實性이 더욱 未知數로 작용하는 것이다.

原電의 安全性 提高

체르노빌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만해도 원자력산업계는 아주 훌륭한 安全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체르노빌에서는 주로 消防대원과 운전요원 30명이 방사능에 被曝되어 죽었다. 사고 후 몇백명이 入院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그후에 退院했다. 그들은 방사선 被曝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住民들과 마찬가지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암에 대한 위험성을 過小評價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위험도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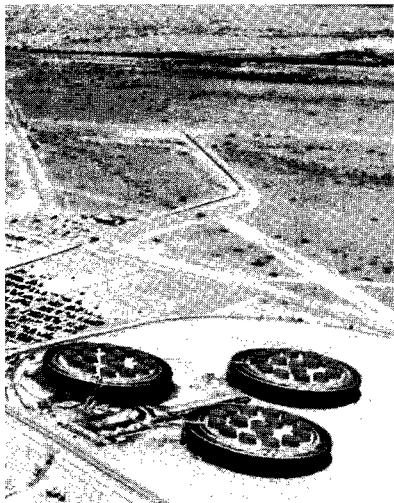
체르노빌사고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앞으로 70년간에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몇 千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다른 요인에 의하여 암에 걸릴 확률은 몇백만에 이르는 것이다. 人間이 활동하면 반드시 위험이 同伴하게 마련이고,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예를들면, 水力발전에서는 댐 붕괴가 문제되고, 石炭火力에서는 採炭사고가 크고, 天然가스는 폭발위험이 있고, 石油발전은 火災와 漏洩사고가 뒤따른다.

체르노빌 사고는 언론에서 너무도 대대적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임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原子力발전 추진에 대해 不動의 政策을 固守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피해가 그리 심하지도 않았고 政治的 동요도 없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이 이미 원자력을 拒否하기로 한 나라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信任이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現時點에서의 당면과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원자력이 깨끗하고 安全한 에너지源이라는 信賴性을 될 수록 빨리 회복하는 문제이다. 체르노빌 사고후 IAEA 회원국들은 IAEA 당국에 원자력 안전 提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振興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두가지 국제회의가 召集되었는데



하나는 원자력事故發生時에 대비키 위해 緊急通知制度를 확립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를 위해 어떻게 相互協力を 해야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方案을 수립하는 과제였다.

IAEA의 安全性提高계획은 더욱 擴大改善되어 왔다. 원자력발전소를 위한 안전기준은 나날이 向上되고 있으며 만일 회원국들이 이 기준안을 채택하여 自國에 通用키로 한다면 안전성은 더욱 提高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의 최종책임은 언제나 국가가 져야 한다. 왜냐하면 安全規制를 강조하고 그施行與否를 감독하고 그 執行을 強要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국가의 行政當局이기 때문이다. IAEA가 제공하고 있는 OSART팀(Operational Safety Review Team, 原電運轉安全性評價班)제도는 회원국이면 어느 국가에서나 요청하기만 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팀을誘致하면 원자력안전확보를 국제수준에 알맞도록 提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信任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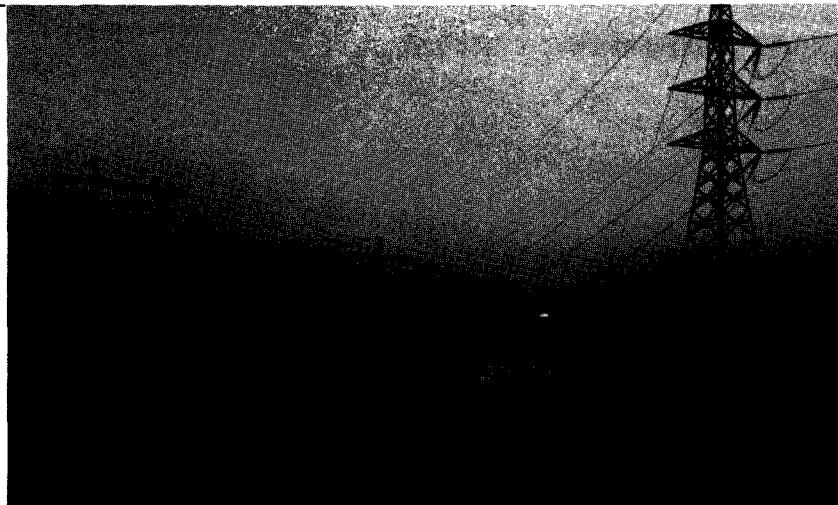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豫防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문제다. 만일 앞으로 또다시 두번째의 사고가 나서 방사성물질을 大氣에 방출하게 된다면 세계의 輿論은 결단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만은 최고수준으로 提高하여 이를 基準화하고 모두가 이것을 履行토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일의 경우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당시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豫防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문제다. 만일 앞으로 또다시 두번째의 사고가 나서 방사성물질을 大氣에 방출하게 된다면 세계의 輿論은 결단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 만은 최고수준으로 提高하여 이를 基準화하고 모두가 이것을 履行토록 해야할 것이다.

만약 방사성물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반의 對策을 강구해 놔야 하는 일이다. 물론 다음에 設計건설될 次世代 원자력발전소는 지난날 비행기 모델이 바뀔때마다 改良되었던 것처럼, 지금 운전중인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간단하고 더 좋을 것이 틀림없겠지만 그래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우선 지금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는 현재 운전중인 400餘基의 動力爐 安全 확보이다. 다음에 설계될 원자로는 지금 운전중인 원자로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방사성 폐기물 대책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전문가들이 技術成熟을 確信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중의 여론은 아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排出되는 폐기물량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폐기물의 처리 처분은 적절한 地質構造를 가진 岩盤에 제대로 관리, 隔離, 처분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使用後 핵연료의 부피가 同一量의 電力を 발전한 石炭火力발전소에서 나오는 硫素(As), 바나듐, 납, 카드뮴 및 기타의 有毒重金屬의 分量보다도 적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과 火力의 큰 차이는 원자력에서는 폐기물을 완전 격리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火力발전소에서는 폐기물을 그냥 우리의 生活圈에 放置한



다는 차이가 있다.

IAEA 와 核非擴散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 개발에서 정부와 大衆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은 核武器의 非擴散制度를 계속 유지하고 IAEA의 檢察방법을 現場에서의 檢證수단으로 定着시키는 일이다.

회원국들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않겠다고 정치적 및 법적으로 스스로를拘束하고 있는 Tlatelolco 및 核武器擴散禁止條約은 全幅의 檢察(full-scope safeguards)을 통하여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IAEA의 檢察은 원자력 交易을 하는데는 前提條件으로 되어있다. 원자력 商品 공급자는 핵연료나 장치가 軍事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檢證방법으로 立證되기를 바라며, 도입자는 도입한 것이 오로지 평화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인근 국가와 세계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을 국제적으로 交易하고 기술을 移讓하는 행위는 핵무기 비확산제도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斷言할 수 있다. 核기술을 국제적으로 이양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핵확산 금지 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또한 IAEA의 檢察 제도를 지지한다는 것을 前提해야 한다.

本人은 原子力發電에 대한 신임을 회복하려면 정부와 관계당국이 이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끝맺으려 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原子力產業界와 관련 研究기관에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大衆과 뜻있는 討議를 할 수 있도록 貢獻해야 할 것으로 본다. IAEA 당국은 많은 나라에서 잘못 알려져 있거나 대중의 偏派的인 견해를 是正하는 일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IAEA는 최근 회원국들로부터 대중의 오해를 是正하는데 도움이 될 公正하고 中立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요청을 받아 들이고자 한다.

本人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本人은 원자력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자력 산업이 당면한 제반과제는 油類波動 이후의 에너지需給을 再定立하는 일로歸着된다. 우리는 현재 이 再定立時期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發電設備를 發注하게 될 때는 반드시 경제성 못지 않게 環境保存에 가장 유리한 발전 수단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와 더불어 安全性確保를 重視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중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운전실적을 훌륭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